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023. 10. 27(금). 오후 19:00 ~ 21:00
2. 장 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54번지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 사무실
3. 참석이사: 대표이사 정●희, 이사 정●대, 이사 곽●목, 이사 심●숙
이사 최●춘 (5명)
4. 심의안건: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원장 변경(안) 심의 건

▶ 성원보고

○ 정●진 원장 : 재적이사 7명 중 출석 5명으로 이사회 개의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다.

▶ 인사말 ▪ 개회선언

- 정●희 대표이사 : 인사말과 함께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원장 변경(안) 심의 건

○ 정●희 대표이사 :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원장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다. 평화의집 한우섭 부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음. 갑작스런 퇴사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적서를 제출하기 전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함. 올 해 7월 초 조리원 중 한분이 고충 내용을 적은 편지를 부원장에게 보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고충 내용을 확인해 보니 1년 전 타 부서 팀장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언을 듣고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올해 5월경에 체험홈 업무와 관련하여 영양팀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다소 일방적인 결정들이 내려진다고 느껴져 그 당시 일이 다시 상기되어 폭언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부원장에게 면담을 하였다고 함. 조리원의 고충 내용을 들은 부원장이 한사람 말만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삼자대면을 하자고 해 고충처리 결과를 기다렸는데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조리원이 먼저 메신저로 삼자대면은 언제 하게 되는지 물으니 서로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생 한 것으로 보여 삼자대면을 할지, 팀원들간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게 팀장 선에서 업무 조율을 할 수 있게 업무 시스템을 바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그리고 일주일 후 영양지원팀 팀장으로부터 팀원들 간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게 팀장 선에서 업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달 받고 자신의 고충이 개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부되는 것과 고충을 상담한 본인에게 직접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 처리 절차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이였음.

상황을 파악하고 부원장에게 왜 조리원에게 고충 내용을 듣고 즉시 내부 규정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해서 처리 하지 않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리 결과 또한 고충을 토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영양지원 팀장을 통해 했는지 물으니 일이 확대 될까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으며 본인이 알아 본 결과 고충 내용이 조리원이 주장하는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물으니 조리원이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팀장이

이 일로 사직을 하게 될 경우의 업무 공백을 우려 하는 등 관리자로서 이 사안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

또한 부원장 본인이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시간에 피해를 호소했던 조리원을 찾아가 폭언을 한 팀장이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한두 달 기다려주면 사과를 하겠다고 한다. 라고 했다가 같은 날, 저녁 준비 시간에 다시 조리원을 찾아가 지금 팀장이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사과를 받아 주라고 하는 등 관리자답지 않은 처신으로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을 더 키우는 듯 해 제가 직접 조리원과 해당 팀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미 서로의 감정이 너무 악화 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이 일이 조리원이 고충을 상담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이 일과 관계된 직원들에게 사실조사서를 제출 받음.

이후 조리원의 주장대로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들을 검토 후 판단해야 한다고 해 내부 규정에 따라 노무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2명, 내부 위원 2명, 시설장으로 5명의 임시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신고인 및 피신고인, 목격자 진술을 통해 4시간의 회의결과 신고인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여 지나 그 행위가 일회성으로 지속적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팀장으로서 부서 간 갈등을 중재함에 있어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언으로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고충처리 과정에서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부원장에게 진술서를 받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음.

고충처리 위원회가 끝나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부원장이 장기휴가와 병가 신청을 해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가 병가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의 병

명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 와 이번 일로 시설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노무사까지 들어와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태수습을 하려는 의지도 없이 거주시설 전환 컨설팅 등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시기에 한 달 동안이나 휴가로 업무 공백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장기간이 될 수 있는 병가휴직을 가게 되면 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냐고 하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음. 갑작스런 부원장의 퇴사로 현재 사무국장 공개 채용을 하고 있으며 고충처리는 노무사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당 팀장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음.

이사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20년간 법인 산하 직업재활원 원장을 겸임하다 올해 거주시설로 옮겨 와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의 변화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평화의집으로 옮겨 온지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 파악 중에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고 또한 실무책임자인 부원장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퇴사를 해 버린 상황에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시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시설운영을 맡기고자 하오니 참석 하신 이사님들께서는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 원장 변경 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목 이사**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내부 취업규칙에도 처리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이 것 또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경험 상 단 한번이라고 해서 괴롭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정●진 원장** : 노무사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번 사건 또한 지방 노동위원회로

갔을 때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행위자가 직책 상
우위에 있고 폭언이 직무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판단은 되나 고충처리위원
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팀장으로서 부서 간 갈등을
중재함에 있어 하급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였음을 설명하다.

○ 심●숙 이사: 거주시설에 그동안 일어난 일로 두 분 원장님께서 마음고생
이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되며 고충처리 건은 원만하게 해결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함. 사무국장도 공식인 상태라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원
활하게 시설 운영을 하 기 위해 거주시설에 대해 이해가 높은 시설장을 채
용하는 안건에 찬성함.

○ 참석이사 전원 :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 재청하다.

○ 정●희 대표이사: 참석 이사님 전원 동의로 평화의집 원장 변경(안)이 원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정●희 대표이사: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법인 인사위원회에 공개채용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함.



○ 참석이사 전원 : 전원 동의함.

○ 정●희 대표이사 : 지금은 거주시설 평화의집을 안정시키는 일이 최우선
이므로 평화의집 원장 채용이 결정되면 본인의 거취는 다시 의논드릴 것을
말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 대표이사

정영희



이 사

정헌대



이 사

곽종복



이 사

최자준



이 사

심미숙

